

[2026] 한주간 쉽게 보는
도내 언론 키워드 동향

Jeju News Keyword Trends

No. 75



Contents

※ 대상 언론사 : 한라일보, 제주일보, 제주매일, 제민일보, 삼다일보, 제주의소리, 헤드라인제주

※ 대상 기간 : 2026.01.15~2026.01.21

① 분야별 언론 주요 키워드

- 정치·행정 1
- 경제·관광 2
- 지역·사회 2

② 분야별 뉴스 Word Cloud

- 정치·행정 분야 보도자료의 주요 내용 3
- 경제·관광 분야 보도자료의 세부 내용 8
- 지역·사회 분야 보도자료의 세부 내용 13

① 분야별 언론 주요 키워드

- 제주지역 ①정치·행정, ②경제·관광, ③지역·사회 등 3개 분야에 대한
도내언론 키워드 분석 결과

분야	주요 키워드
정치·행정	청년, 승진, 해녀, 핵심, 성과
경제·관광	생산, 수입, 만감류(감귤/만다린), 청년, 조합장
지역·사회	남성(여성), 범죄, 도로, 연구, 외국인

※ 분석 기간 : 26.01.15.~26.01.21

대상 언론사 : 한라일보, 제주일보, 제주매일, 제민일보, 삼다일보, 제주의소리, 헤드라인제주

- (정치·행정 분야) 주요 보도 내용

정치·행정	청년	- 구직 단념 청년 도전 지원 - 제주 전입 청년 정착금 지원 - 청년 주거비 월세 지원 확대
	승진	- 민선 8기 제주도 정기인사 - 서귀포시 역대 최대 승진 - 제주시 여성 공무원 약진
	해녀	- 해녀 수 감소 및 고령화 - 해녀 지원 예산 및 정책 - 해녀 진입 장벽 및 소득
	핵심	- 하수처리장 현대화 시설 - 2026년 경제 성장 전략 - G20 정상회의 유치
	성과	- 여권 민원 서비스 평가 -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수상 - 중대재해 예방 공모 선정

○ (경제·관광 분야) 주요 보도 내용

경제·관광	생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삼다수 용기 경량화 통한 친환경 생산 혁신 - 검은무늬병에 강한 신품종 조생 브로콜리 선발 - 기후변화에 따른 제주 농업 생산성 저하 및 경제적 손실
	수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산 만다린 무관세 수입에 따른 제주 농가 위기감 - 소비자 블라인드 시식회서 제주 만감류 '판정승' - CPTPP 가입 추진에 따른 제주 농민단체의 강력 반대
	만감류(감귤/만다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감류 가격 안정을 위한 1만 톤 긴급 매취사업 - 제주 골드키위를 활용한 프리미엄 디저트 양갱 출시 - 자체 협력을 통한 만감류 홈쇼핑 직거래 채널 확대
	청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 전입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탐라청년출발패키지' - 제주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의 수혜 대상 및 기간 확대 - 제주더큰내일센터 '탐나는인재' 12기 모집 및 선발
	조합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양돈농협 창립 40주년 기념 및 미래 비전 공유 - 물가안정 기여 공로로 '국민포장' 수상한 백성익 조합장 - 축산 경영 위기 속 가축시장 안정 이끈 김용관 조합장

○ (지역·사회 분야) 주요 보도 내용

지역·사회	남성(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의 여성 제주보호관찰소장 임명 - 통계로 보는 제주 여성·가족의 삶 - 교육 수준 향상과 학력 격차 완화
	범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무원의 개인정보 불법 매매 사건 - 공권력 위협 흉악 범죄 및 엄정 대응 - 외국인 조직적 마약 밀반입 적발
	도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폭설과 한파로 인한 도로 통제 - 화물차 전도 등 교통사망사고 발생 - 교통약자 보호를 위한 스마트 인프라 구축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후변화 지표 식물 개화 시기 연구 - 제주 농업문화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 여성·가족 정책 수립을 위한 통계 연구
	외국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 사각지대 외국인 범죄피해자 지원 - 외국인 대상 묻지마 폭행 범죄 검거 - 외국인 관광객 카지노 집단 난동 처벌

② 분야별 뉴스 Word Cloud

- 2026년 1월 5일~1월 21일 기간, 정치·행정, 경제·관광, 지역·사회 등에 관한 제주지역 7개 주요 언론사 보도자료는 약 776건임
 - 정치·행정 분야 339건, 경제·관광 157건, 지역·사회 280건임
 - * 대상 언론사: 한라일보, 제주일보, 제주매일, 제민일보, 삼다일보, 제주의소리, 헤드라인제주
 - 정치·행정 보도자료의 워드 클라우드를 살펴보면, 주요 키워드는 청년, 승진, 해녀, 핵심 성과 등으로 나타남



[그림 1] 정치·행정 분야 뉴스의 Word Cloud

- #### ○ 정치·행정 분야 보도자료의 주요 내용

정치·행정	청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직 단념 청년 도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및 수당 지원함. 제주특별자치도는 6개월 이상 장기 실업이나 사회적 고립으로 자신감을 잃은 청년들의 구직 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심리 상담과 진로 탐색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2026년 청년 도전 지원 사업' 참여자를 모집함. 이수자에게는 최대 250만 원의 참여 수당과 취업 시 추가 인센티브를 지급하여 경제활동 복귀를 적극 도움. · 청년 130명 대상 일자 지원 추진함.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해 총 6억 599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사회적협동조합 제주내일과 함께 130명의 청년을 대

	<p>상으로 단기, 중기, 장기 과정을 운영함. 구직 단념 청년뿐만 아니라 자립 준비 청년, 북한 이탈 청년 등 지원이 필요한 35세~39세 청년까지 참여 폭을 넓혀 지역 특화 기준을 적용한 밀착 지원을 2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 전입 청년 정착금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탐라청년출발패키지 사업 본격 시행함. 제주도는 청년 인구 유입과 안정적인 정착을 돋기 위해 타 시도에서 전입하는 19세~39세 청년에게 초기 정착금을 지원하는 '2026년 탐라청년출발패키지' 사업을 추진함. 전입 형태에 따라 일 반형은 10만 원, 과거 제주 거주 이력이 있는 U턴형은 20만 원을 지역화폐인 탐나는전으로 지급하여 청년들의 부담을 덜고 생활 인구를 확대하고자 함. · 전입 축하금 및 정주 장려금 분할 지급함. 지원금은 전입 직후 지급되는 1차 전입 축하금과 6개월 이상 거주 시 지급되는 2차 정주 장려금으로 나뉘어 지급됨. 다만 지원 금액이 이사비 지원보다 적고 한시적 지원에 그쳐 실질적인 장기 정착 유도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나, 도는 예산 소진 시 추경을 고려하고 반응에 따라 사업을 확대할 계획을 밝히며 청년 정착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기대함. - 청년 주거비 월세 지원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5~39세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함. 제주시와 제주도는 정부의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연령 기준(19~34세)에서 제외된 35세~39세 무주택 청년들을 위해 '제주 청년 희망충전 월세 지원사업'을 연중 상시 접수함.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 원씩 최장 12개월간 임대료를 지원하여 청년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 조성을 도모함. · 사각지대 해소 및 주거 안정망 강화함. 이번 사업은 '청년기본법'과 '제주도 청년 기본조례' 간의 연령 범위 차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됨.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재산 가액 1억 2200만 원 이하인 청년이 대상이며, 온라인(정부24)이나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 접근성을 높이고 주거 복지 를 실현함.
청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선 8기 제주도 정기인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과 중심의 발탁 및 전문성 강화함. 제주특별자치도는 민선 8기 도정의 마무리와 성과 창출을 위해 총 878명 규모의 2026년 상반기 정기인사를 단행함. 안전건강실장에 양제윤, 경제활력국장에 강애숙 등을 임명하고, 농축산식품국장과 상하수도본부장에 기술직렬을 배치하여 전문성을 강화함. 특히 성과 우수 공무원 발탁 추천제를 통해 승진 인원의 20%를 발탁하여 열심히 일하는 조직 분위기를 조성함. · 핵심 보직 유임으로 조직 안정 도모함. 기획조정실장, 특별자치행정국장 등 도정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주요 보직은 유임시켜 조직의 안정을 꾀함과 동시에, 조상범 안전건강실장을 의회사무처장으로 승진 발령하는 등 소통과 협력을 강화함.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조직의 동요를 최소화하면서도 핵심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검증된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전략적인
정치·행정	
승진	

정치·행정	<p>인사를 시행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귀포시 역대 최대 승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선 8기 최대 규모 173명 승진함. 서귀포시는 '일 잘하는 조직 문화' 정착을 목표로 민선 8기 출범 이후 최대 규모인 173명의 승진 인사를 포함해 총 448명 규모의 정기인사를 단행함.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우대받을 수 있도록 성과 중심의 승진 기준을 확립하였으며, 4급 국장급에는 제주도 본청 출신의 김연정, 부미선 서기관을 임명하여 도정 정책과의 연계성을 강화함. · 소수 직렬 배려 및 여성 공직자 발탁함. 이번 인사에서는 4년 6개월 만에 사서 출신 사무관(정순임)을 배출하는 등 소수 직렬에 대한 배려가 돋보였으며, 기획예산과장에 강정숙, 여성가족과장에 이현정 등 주요 보직에 여성 공직자를 전진 배치함. 또한 읍면동장 교체를 최소화하여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장 행정의 연속성과 안정을 꾀하는 한편, 개방형 직위인 동부보건소장에는 내부 직원을 임용함. - 제주시 여성 공무원 약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 공무원 승진 및 주요 보직 배치함. 제주시는 총 591명 규모의 정기인사에서 5급 승진 의결자 10명 중 5명을 여성으로 선발하며 여성 공무원의 약진이 두드러짐. 특히 복지가족국장에 한명미 서기관을 승진 임명하고, 주요 부서장에 여성 공무원을 배치하여 균형 인사를 실현함. 성과 우수자로 추천된 오동근 팀장을 기획예산과장으로 발탁 승진시키는 등 능력 중심의 인사 원칙을 적용함. · 현장 중심 인력 배치 및 조직 활력 제고함. 1차 산업 분야 등 격무 부서에서 성과를 낸 조영미 팀장을 일자리에너지과장 직무대리로 승진 임용하는 등 현장 중심의 보상 체계를 강화함. 전체 승진 인원이 226명에 달해 6급 이하 하위직 공무원들의 승진 적체를 해소하고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었으며, 읍면동장 전보를 최소화하여 대민 행정 서비스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임.
해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녀 수 감소 및 고령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직 해녀 2300명대로 감소세 지속됨. 2025년 말 기준 제주도 내 현직 해녀 수는 2,371명으로 전년 대비 252명(9.6%)이 감소하여 해녀 소멸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음. 2015년 4,377명이었던 해녀 수가 10년 사이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으며, 매년 평균 200명 이상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 이는 고된 노동 환경과 바다 자원 고갈, 신규 진입의 어려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됨. · 70세 이상 고령 해녀가 63% 차지함. 전체 해녀 중 70세 이상이 1,500명으로 63%를 차지하는 등 고령화가 심각한 수준임. 50세 미만 해녀는 4%인 105명에 불과해 세대 전승의 단절이 우려되는 상황임. 고령 해녀들의 은퇴가 이어지는 반면 신규 해녀 유입은 저조하여, 제주도는 고령 해녀의 안전사고 예방과 건강 관리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의료비 및 수당 지원을 강화하고 있음. - 해녀 지원 예산 및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35억 원 투입해 29개 지원사업 추진함. 제주도는 올해 해녀 보호 및 육성을

	<p>위해 총 23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9개 세부 사업을 시행함. 복권기금 87억 원을 활용해 고령 해녀의 진료비를 지원하고, 70세 이상 해녀에게는 월 10~2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여 무리한 조업을 방지함. 또한 잠수병 치료 지원과 안전 장비 보급을 확대하여 해녀들의 조업 환경을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 해녀 양성 및 문화 보전 강화함. 높은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 초기 정착금을 지원하고 어촌계 가입비를 보조하는 등 신규 해녀 육성 정책을 강화함. 현장 적응 교육 프로그램을 내실화하여 신규 해녀들이 안정적으로 정착 할 수 있도록 돋고, 해녀의 전당 건립과 유네스코 등재 10주년 기념사업 등을 통해 제주 해녀 문화의 가치를 세계적으로 알리고 보전하는 사업을 지속 적으로 추진함. <p>- 해녀 진입 장벽 및 소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촌계 가입 절차 및 비용 장벽 존재함. 해녀가 되기 위해서는 기존 해녀들의 동의를 얻고 수협 조합원에 등록한 뒤 어촌계에 가입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로움. 특히 어촌계 가입비와 수협 출자금 등 금전적 부담이 신규 해녀 진입을 막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제주도는 이러한 진입 장벽 을 완화하기 위해 제도적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재정적 지원을 병행하고 있음. · 자원 고갈로 인한 소득 감소 및 격차임. 기후 변화와 바다 환경 악화로 인해 수산 자원이 고갈되면서 해녀들의 물질 활동이 어려워지고 소득이 불안정해짐. 해녀들의 연평균 소득은 약 791만 원 수준이나, 개인 능력에 따라 500만 원 이하부터 2,000만 원 이상까지 소득 격차가 큼. 이에 따라 해녀들은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는 신규 인력 유입을 저해하는 또 다른 원인이 됨.
정치·행정	<p>- 하수처리장 현대화 시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하화 및 악취 차단 1단계 공사 완료함. 제주시 도두동 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의 핵심인 1단계 공사가 완료되어 처리 시설이 전면 지하화됨. 이를 통 해 고질적인 악취 문제를 원천 차단하고, 방류수 수질(BOD, 부유물질 등)을 법적 기준보다 획기적으로 개선함. 지상에는 50m 높이의 전망대를 설치하여 제주 공항과 바다를 조망할 수 있는 새로운 랜드마크로 조성하는 등 혐오 시 설을 친환경 공간으로 탈바꿈함. · 2028년 완공 목표로 후속 공정 추진함. 올해는 2단계 사업으로 전처리 시설, 찌꺼기 처리 시설, 분뇨 처리 시설 등 하수 처리의 핵심 공정을 무중단 공법 으로 진행하여 12월 완공을 목표로 함. 2028년 1월 전체 사업 완공 시 하루 처리 용량이 기존 13만 톤에서 22만 톤으로 대폭 늘어나 제주시의 하수 처리 난을 해소하고, 지상 상부에는 생태 공원과 주민 친화 시설을 조성하여 지역 주민에게 환원할 계획임. <p>- 2026년 경제 성장 전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대 정책 및 88개 핵심 과제 추진함. 제주도는 '민생경제 온기 회복'과 '경제 체질 개선'을 목표로 2026년 경제 성장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 한 7대 정책과 22개 분야, 88개 핵심 과제를 선정함. 소상공인 위기 징후

정치·행정	<p>알람 시스템 도입, 지역화폐 탐나는전 5천억 원 발행, 착한가격업소 확대 등 민생 안정을 최우선으로 하며, 우주 산업 및 그린수소 등 미래 신산업 육성을 통해 경제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자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설 경기 활성화 및 미래 산업 육성함.침체된 건설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중소 건설업체에 240억 원 규모의 특별 보증을 지원하고,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한 '착한가격 주택' 사업을 추진함. 또한 하원테크노캠퍼스 우주 기업 유치, 분산에너지 특화 지역 지정에 따른 이익 환원, 관광 산업의 사계절 체류형 전환 등 제주의 미래 먹거리를 위한 핵심 산업 육성에 행정력을 집중하여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 기반을 마련함. <p>- G20 정상회의 유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주 유치 제안서 총리에게 전달함.문대림 국회의원은 김민석 국무총리를 만나 2028년 G20 정상회의 제주 개최를 위한 제안서를 직접 전달하며 유치 의사를 강력히 피력함. 제주는 완벽한 경호가 가능한 섬의 지리적 특성, 탄소중립 정책과 G20 의제의 부합성, 풍부한 국제회의 개최 경험 및 인프라를 갖춘 최적지임을 강조함. 이는 대한민국이 18년 만에 의장국이 되는 G20 정상회의를 지방 분권과 균형 발전의 핵심 모델인 제주에서 개최해야 한다는 논리임. 총리의 긍정적 답변 및 유력 후보지 검토함.김민석 총리는 제주는 이미 준비된 도시라며 G20 정상회의 개최지 선정 시 유력한 후보지로 적극 검토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음. 문 의원은 총리의 약속이 실질적인 개최 확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고, 제주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알리며 끝까지 쟁기겠다고 밝힘. G20 정상회의 유치는 제주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핵심 모멘텀이 될 것으로 기대됨.
성과	<p>- 여권 민원 서비스 평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국 258개 기관 중 4위 성과 달성함.제주특별자치도는 외교부가 주관한 여권 사무 대행 기관 성과 평가에서 전국 258개 기관 중 총점 99.80점을 획득하여 4위를 차지함. 이는 민선 8기 출범 이후 최고 성적으로, 2023년 이후 3년 연속 점수가 상승하며 여권 민원 서비스의 품질과 신뢰성을 인정받음. 개인정보 보호, 보조금 집행, 여권 업무량 등 4개 분야에서 만점을 기록하는 등 탁월한 운영 성과를 보임. 야간 민원실 및 배달 서비스 호평받음.직장인을 위한 매주 월요일 야간 민원실 운영과 취약 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여권 배달 서비스' 등 도민 맞춤형 편의 시책이 높은 평가를 받음. 또한 여권 발급 수요 급증에도 불구하고 대기 현황 실시간 확인 서비스를 도입하는 등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함. 이번 성과는 현장 직원들의 헌신과 도민 중심의 적극 행정이 빛어낸 결과로 평가됨. <p>-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수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권 도의원 좋은 조례 분야 최우수상 수상함.한권 제주도의회 의원은 한국 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관한 '제17회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좋은 조례 분야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함.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제주도 해안사구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기후 위기 시대 해안사구 보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점이 높게 평가됨. 이는 3년 연속 수상이라는 쾌거로, 도민과

정치·행정	<p>의 약속을 성실히 이행한 의정 활동의 성과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 주권 실현 및 실질적 보전 방안 마련함. 조례 제정 과정에서 환경단체와의 협업, 토론회 개최 등 공론화 과정을 충실히 이행하여 주민 주권을 실현한 점이 인정받음. 특히 도유지 해안사구를 행정재산으로 지정하여 보전하는 등 독창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관련 예산을 조속히 편성하여 실행력을 확보한 점이 높은 점수를 받음. 이번 수상은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입법 활동의 모범 사례로 기록됨. <p>- 중대재해 예방 공모 선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용부 공모 선정되어 국비 12억 확보함. 제주도는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2026년 지역 중대재해 예방 사각지대 해소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국비 12억 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둠. 이를 통해 재정 여건이 열악한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과 해양 사고 위험이 높은 어선, 농업 현장 등에 대한 안전 관리를 강화할 수 있게 됨. 전국 6개 지자체 중 하나로 선정되어 제주의 안전 관리 역량을 입증함. 취약 분야 맞춤형 안전 관리 체계 구축함. 확보된 예산은 관리 사각지대 보완형과 제주 특성 산업형으로 나누어 투입됨. 밀폐 공간 질식 사고 예방, 고령자 및 외국인 근로자 안전 교육, 어선 및 농산물 선과장 안전 장비 지원 등 지역 특성에 맞는 현장 밀착형 지원을 추진함.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중대재해 없는 안전한 제주를 만들기 위한 예방 중심의 안전 관리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할 계획임.
-------	---

- 경제 · 관광 보도자료의 클라우드를 살펴보면, 주요 키워드는 생산, 수입, 만감류(감귤/만다린), 청년, 조합장 등으로 나타남



[그림 2] 경제·관광 분야 뉴스의 Word Cloud

○ 경제·관광 분야 보도자료의 세부 내용

경제·관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삼다수 용기 경량화 통한 친환경 생산 혁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개발공사가 제주삼다수 330㎖ 제품의 용기 무게를 기준 대비 약 14% 추가 감량하는 데 성공하여 이달부터 본격 출시함. 이는 지난해 전 품종 용기 무게를 12% 줄인 데 이은 성과로, 연간 약 180t의 플라스틱 사용량 절감과 430t의 탄소 배출 저감 효과가 기대되는 혁신적인 조치임. · 이번 경량화는 용기 폭을 줄여 휴대성과 편의성을 개선했을 뿐만 아니라, 제품 적재 효율을 약 20% 높여 물류 운송 횟수 감소에 따른 물류 혁신 효과까지 예상됨. 백경훈 사장은 '2040 플라스틱 제로 제주' 실현을 위한 공사의 강력한 의지를 강조하며 품질 유지와 환경 영향 최소화를 동시에 달성하겠다고 밝힘. - 검은무늬병에 강한 신품종 조생 브로콜리 선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도 농업기술원은 수입 종자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자체 선발한 조생 브로콜리 '제주Br-10호'와 '제주Br-11호'의 농가 실증시험을 진행하여 우수한 성과를 확인함. 이들 계통은 수입산 조생 품종과 수확기는 유사하면서도 가을장마 철에 문제가 되는 검은무늬병 발생이 현저히 적어 상품성이 뛰어난 것으로 나타남. · '제주Br-10호'는 진한 청록색 구로 상품률이 높고, '제주Br-11호'는 줄기가 가늘고 구가 단단한 장점이 확인됨. 농업기술원은 2026년 추가 실증시험을 거쳐 품종보호출원을 추진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국내 브로콜리 재배면적의 74%를 차지하는 제주 지역 농가의 종자비 부담 경감과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전망임. - 기후변화에 따른 제주 농업 생산성 저하 및 경제적 손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은행 제주본부와 서울대 연구팀의 보고서에 따르면, 이상기후로 인해 당근, 감자, 키위 등 제주 주요 농작물의 생산성이 10%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측됨. 이러한 생산성 저하는 1차 산업을 넘어 전 산업에 영향을 미쳐 제주 지역내총생산(GRDP)이 연간 약 670억 원 규모로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분석 결과가 나옴. · 다만, 레드향, 망고 등 아열대성 고부가가치 과일로의 원활한 품목 전환과 생산성 개선이 이루어질 경우 오히려 부가가치가 최대 254억 원 증가할 가능성도 제시됨. 이에 따라 새로운 기후 조건에 적합한 품종 육성과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한 가공품 개발, 관광 산업 연계 등 적극적인 기후변화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부각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산 만다린 무관세 수입에 따른 제주 농가 위기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6년부터 미국산 만다린에 대한 수입 관세가 0%가 됨에 따라 제주 감귤 농가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음. 만다린 관세는 한미 FTA 체결 이후 단계적으로 철폐되어 왔으며, 올해는 전면 무관세가 적용되어 약 1만 6000t의 수입이 예상됨. 특히 주 출하 시기가 제주 만감류와 겹치는 2~3월로 예상되어 직접적인 타격이 우려됨. · 이에 문대림 의원과 농식품부는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수입 만다린에 대한 병해충 정밀 검역 및 통관 단계 관리를 강화하기로 함. 또한 수입업체가 참여하는 수급조정협의체를 구성하여 물량 집중 현상을 완화하고 시장 가격 안정을

수입 경제·관광	<p>도모하는 한편, 원산지 미표시 등 부정 유통 질서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시행할 방침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비자 블라인드 시식회서 제주 만감류 '판정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국제감귤박람회조직위원회는 미국산 만다린 수입에 맞서 제주 만감류의 품질 경쟁력을 검증하기 위해 소비자 250여 명을 대상으로 블라인드 시식회를 개최함. 한라봉, 레드향, 썬니트 3개 품종과 수입 만다린을 비교한 결과, 제주 만감류가 수입산 대비 최대 2배 이상 높은 선호도를 기록하며 우수성을 입증함. · 참여자들은 제주 만감류가 깊은 향미, 과육의 식감, 갓 수확한 신선도 등 종합적인 맛의 완성도에서 수입 만다린보다 월등하다고 평가함. 반면 만다린은 신선도와 향미 측면에서 상품성이 떨어진다는 반응을 얻었음. 조직위는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소비자 신뢰를 높이고 농가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다양한 홍보 활동을 이어갈 계획임. - CPTPP 가입 추진에 따른 제주 농민단체의 강력 반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은 정부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추진이 제주 농업의 붕괴를 초래할 것이라며 강력히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함. CPTPP는 관세 철폐율이 96%에 달하는 고도화된 무역 협정으로, 가입 시 베트남이나 호주 등지에서 생산되는 저렴한 감귤류가 연중 수입되어 제주 농가의 생존권을 위협할 것이라는 주장임. · 농민들은 미국산 만다린 무관세 수입만으로도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다자간 무역 협정까지 가입하는 것은 농업을 포기하는 선언과 다름없다고 비판함. 특히 국민의 건강권과 직결된 일본 후쿠시마산 농산물 수입 요구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하며, 개방 농정으로 인한 피해 대책 마련 없이 농업을 나락으로 밀어넣는 행태를 중단할 것을 촉구함.
만감류(감귤/만다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감류 가격 안정을 위한 1만 톤 긴급 매취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농산물수급관리운영위원회 감귤위원회는 미국산 만다린 무관세 수입에 따른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만감류 1만 t 내외를 매입하는 긴급 매취사업을 추진하기로 함. 이는 생산 예상량의 약 10% 규모로, 지역 농·감협이 직접 매입하여 시장 공급 물량을 조절함으로써 가격 하락을 방지하고 산지 거래를 활성화하려는 목적임. · 매취 가격은 산지 거래 상황과 도매시장 평균 가격을 참고하여 결정될 예정이며,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축산물 할인지원' 품목에 만감류를 포함하도록 건의하는 등 공격적인 마케팅도 병행함. 위원회는 농가들에게 당도와 향이 최상인 완숙과만 출하하도록 독려하여 수입산과의 품질 차별화를 통한 시장 주도권 사수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임. - 제주 골드키위를 활용한 프리미엄 디저트 양갱 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시농협은 경제 사업 4대 핵심 과제 중 하나인 가공 사업 확대를 위해 제주산 골드키위가 30% 함유된 '제주암 제주 골드키위양갱'을 새롭게 출시함. 이 제품은 기존의 팥 중심 양갱과 달리 골드키위 특유의 상큼한 풍미와 부드러운 식감을 살려 프리미엄 디저트로서의 가치를 높인 것이 특징임. · 일반 소매용(12개입)과 선물 세트(16개입) 두 가지 타입으로 출시되어 설 명절

	<p>및 기념일 선물 수요에 대응하며, 제주시농협 온라인 쇼핑몰과 하나로마트 등 온·오프라인 채널에서 판매됨. 고봉주 조합장은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여 조합원 소득을 뒷받침하는 핵심 전략으로서 가공 사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임을 밝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 협력을 통한 만감류 홈쇼핑 직거래 채널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시는 경북 의성군과 협력하여 제주시 레드향과 의성군 사과를 한 세트로 구성한 지역 상생 직거래 모델을 NS홈쇼핑을 통해 처음 선보임. 이번 공동 판매는 최근 무관세 만다린 수입 확대 등 시장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유통 단계를 줄여 농가 소득을 증대시키며 소비자에게 고품질 과일을 합리적 가격에 제공하기 위해 마련됨. · 홈쇼핑을 통해 판매된 물량은 산지유통센터(APC)에서 엄격하게 선별·포장된 프리미엄급 제품으로, 온라인 직거래 채널을 통해 전국 소비자들에게 직접 전달됨. 김완근 제주시장은 이번 첫 방송의 성과를 바탕으로 추가 방송과 온라인 판매 확대를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만감류 출하 물량 분산과 가격 안정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임.
경제·관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 전입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탐라청년출발패키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도는 청년들의 전입 초기 안정적인 정착을 돋기 위해 '2026년 탐라청년출발패키지(청년 전입 축하장려금)' 사업을 추진함. 지원 대상은 2026년 이후 제주로 전입한 만 19~39세 청년으로, 전입 형태에 따라 일반형(10만 원)과 U턴형(20만 원)으로 구분하여 모바일 지역화폐 '탐나는전'으로 지급함. · 지원금은 1차 전입축하금과 6개월 거주 유지 시 지급되는 2차 정주장려금으로 나누어 제공되며,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음. 신청에 필요한 주민등록 주소 이력은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므로 별도의 증빙 서류 제출 부담을 줄였으며, 2월 23일부터 선착순으로 접수를 시작할 예정임.
청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의 수혜 대상 및 기간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도는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 희망충전 월세 지원 사업'의 적용 연령을 만 39세까지 확대하고 지원 기간도 최장 3년으로 늘림. 이는 국토부의 국비 지원(19~34세, 2년)에서 제외된 35~39세 청년을 제주도가 자체 예산으로 1년간 추가 지원하여 청년기본조례 기준에 맞춘 것임. · 지원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인 무주택 청년이며, 실제 납부하는 월세를 범위 내에서 매달 최대 20만 원씩 지급함. 다만 연세(1년치 선납) 형태는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함.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해당 사업을 연중 접수하고 있으며, 주소지 읍면동 사무소 방문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을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제주더큰내일센터 '탐나는인재' 12기 모집 및 선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 지역 대표 청년 취·창업 지원 프로그램인 제주더큰내일센터의 '탐나는인재' 12기 모집 결과, 154명이 지원하여 3:1의 경쟁률을 기록함. 이번 12기는 센터가 원도심으로 이전한 후 처음 선발하는 기수로, 취업 과정(60%)과 창업 과정(40%)에 걸쳐 지역内外 청년들이 고루 지원하여 높은 관심을 보였음. · 선발 과정에는 역량과 가능성을 다각도로 평가하기 위해 2박 3일간 팀 프로젝

	청년	<p>트를 수행하는 '선발형 오디션 방식'이 새롭게 도입됨. 최종 합격한 12기 교육생들은 3월 3일부터 18개월간 체계적인 교육과 인턴십 기회를 제공받으며, 매월 최대 150만 원의 생활지원금을 받아 경제적 걱정 없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받음.</p>
경제·관광	조합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양돈농협 창립 40주년 기념 및 미래 비전 공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양돈농협(조합장 고권진)은 창립 40주년을 맞아 기념행사를 열고 제주 양돈 산업의 지속 가능한 미래 비전을 발표함. 1986년 설립 이래 제주 돼지 품질 고급화와 유통 구조 개선에 주력해 온 양돈농협은 이날 행사에서 싱가포르 수출업체와의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제주산 돼지고기의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를 공식화함. · 고권진 조합장은 기념사를 통해 지난 40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는 친환경·스마트 축산을 기반으로 소비자 신뢰를 회복하고 유통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함. 또한 100년을 바라보는 선도적 축산업 구현을 위해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강화하고 조합원 소득 증대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 지속 가능한 농협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힘. - 물가안정 기여 공로로 '국민포장' 수상한 백성익 조합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효돈농협 백성익 조합장이 기획재정부 주관 2025년 물가안정 유공 포상에서 감귤 수급 안정과 물가 하락에 기여한 공로로 국가 훈장급인 '국민포장'을 수상함. 백 조합장은 고품질 프리미엄 감귤 생산 체계를 구축하고 감귤 가공 및 수출 확대를 통해 제주 감귤 산업의 경쟁력을 한 단계 높였다는 평가를 받음. · 특히 물류비 절감을 위한 유통 체계 개선과 영농자재 지원 등 농업인의 실질 소득 증대에 앞장선 점이 주요 수상 사유로 꼽힘. 백 조합장은 이번 수상이 현장에서 함께 땀 흘려온 조합원과 임직원 모두의 노력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감귤의 안정적인 생산과 공급을 통해 국민 먹거리 물가 안정에 기여하겠다는 소감을 전함. - 축산 경영 위기 속 가축시장 안정 이끈 김용관 조합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귀포시축협(조합장 김용관)은 올해 첫 개장한 가축시장에서 출품된 소 66두 전량이 1차 경매에서 낙찰되는 성과를 거둠. 고물가와 소비 위축 등 어려운 축산 경영 여건 속에서도 암소와 수소 가격 모두가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한 것은 가축시장이 공정한 가격 형성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준 사례임. · 김용관 조합장은 전 두수 낙찰 결과에 대해 고무적인 출발이라 평가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경매 운영을 통해 축산 농가의 신뢰를 높이겠다고 밝힘. 또한 싱가포르 현지에서 '보들결제주한우'와 '제주촌포크' 수출 론칭 행사를 성공적으로 주재하며 제주 축산물의 프리미엄 브랜드 가치를 해외 시장에 알리고 안정적인 수출 기반을 다지는 데 주력함.

- 지역 · 사회 보도자료의 워드 클라우드를 살펴보면, 주요 키워드는 남성(여성), 범죄, 도로, 연구, 외국인 등으로 나타남



[그림 3] 지역·사회 분야 뉴스의 Word Cloud

- #### ○ 지역 · 사회 분야 보도자료의 세부 내용

지역·사회	남성(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의 여성 제주보호관찰소장 임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무행정 전문가의 여성 기관장 발탁법무부가 1989년 제주보호관찰소 설립 이래 최초로 이맹숙 서기관을 제24대 소장으로 임명하며 여성 기관장 시대를 열었음. 34년간의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한 베테랑 행정가의 리더십이 기대됨. · 포용과 엄격함의 조화로운 리더십 천명신임 소장은 취임사를 통해 여성 리더 특유의 섬세한 포용력과 법 집행의 엄격한 원칙 준수를 조화시키겠다고 밝힘. 고향인 제주에서 지역사회와 상생하며 안전과 정의를 구현하는 중책을 수행할 예정임. - 통계로 보는 제주 여성·가족의 삶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 인구 감소와 고령화 심화 현상2025년 기준 제주 여성 인구는 전년 대비 감소세를 보였으며 65세 이상 고령층 비율이 18.9%로 증가해 고령사회 진입을 확인함. 특히 70대 이상 연령층에서는 여성 비율이 남성을 앞지르는 현상이 뚜렷함. · 1인 가구 증가와 가구주 성비 변화가족 구성 형태에서 1인 가구 비율이 34%를 차지하며 주류 가구 형태로 자리 잡았고 여성 가구주 비율 또한 최근 5년간 꾸준히 증가함. 이는 제주 사회의 가족 구조가 전통적 대가족에서 핵가족 및 1인 가구로 급변함을 시사함.

	남성(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 수준 향상과 학력 격차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 평균 교육 연수 및 진학률 상승제주 여성의 평균 교육 연수가 증가하면서 남성과의 교육 격차가 1.3년으로 줄어들었고 대학 진학률 격차 또한 1.2%p 차이로 좁혀짐. 이는 여성의 교육 기회 확대와 사회적 지위 향상의 기반이 강화되었음을 보여줌. · 고학력층에서의 성별 비중 역전 현상석사 과정 졸업자 중 여성 비율이 62.6%로 남성을 크게 앞지르며 고학력 여성 인재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반면 박사 과정에서는 여전히 남성 비율이 높게 나타나 학위 과정 단계별로 성별 분포의 차이가 존재함.
지역·사회	범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무원의 개인정보 불법 매매 사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텔레그램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 및 금품 수수서귀포시 30대 공무원이 기간제 근로자 10여 명의 개인정보를 텔레그램을 통해 신원 불상자에게 넘기고 대가로 1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송치됨. 공공기관의 정보 관리 체계 허점과 공직 기강 해이가 도마 위에 오름. · 고령층 근로자 대상 범죄 및 징계 절차 착수피해자 대부분이 재활용도 움센터 등에서 근무하는 고령의 취약계층으로 확인되어 충격을 줌. 해당 공무원은 직위 해제되었으며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엄중한 처벌과 징계가 예상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권력 위협 흉악 범죄 및 엄정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찰관 손가락 절단 상해 피의자 구속서귀포시 식당에서 만취 소란을 피우다 출동한 경찰관의 손가락을 물어뜯어 절단시킨 20대 남성이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혐의로 구속됨. 공권력에 대한 심각한 도전 행위로 간주되어 법원의 구속 영장이 발부됨. · 경찰청장의 무관용 원칙 및 피해 지원 약속제주경찰청장은 부상 경찰관을 위문하며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관의 신체를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천명함. 현장 경찰관들의 안전 확보와 피해 회복을 위한 지원책 마련이 강조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 조직적 마약 밀반입 적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Tea)로 위장한 필로폰 대량 밀수 시도중국인 남성이 4만 명이 동시 투약 가능한 시가 7억 9천만 원 상당의 필로폰 1.1kg을 찻잎으로 위장해 제주공항으로 밀반입하려다 적발됨. 국제 마약 범죄 조직의 연루 가능성이 제기되며 국경 보안의 중요성이 부각됨. · 검찰의 중형 구형과 범죄의 계획성 입증검찰은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고액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운반책을 모집하는 등 범행이 계획적이고 조직적이라며 징역 15년을 구형함. 제주가 국제 마약 범죄의 경유지로 악용되지 않도록 단속 강화가 요구됨.
	도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폭설과 한파로 인한 도로 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간 도로 차량 운행 제한 및 대중교통 차질대설특보 발효로 1100도로와 5.16도로 등 주요 산간 도로의 차량 운행이 전면 통제되거나 월동장구 착용 시에만 허용됨. 폭설로 인해 도로 결빙 구간이 늘어나며 출근길

		<p>교통 대란과 안전사고 위험이 고조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설 작업 총력 및 도민 안전 수칙 당부도로 당국은 제설차량을 투입해 주요 도로의 눈을 치우는 등 긴급 제설 작업에 나섰으나 계속되는 눈발로 어려움을 겪음. 기상청은 빙판길 블랙아이스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며 가급적 대중교통 이용을 권고함. <p>- 화물차 전도 등 교통사망사고 발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화로 화물차 단독 사고로 운전자 사망제주시 애월읍 평화로에서 주행 중이던 2.5톤 화물차가 가로등과 연석을 들이받고 전도되어 70대 운전자가 현장에서 심정지로 사망함. 경찰은 단독 사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정확한 사고 경위와 안전 운전 불이행 여부를 조사함. 고령 운전자 및 보행자 사고 증가 추세최근 제주 지역 교통사고 통계에서 고령 운전자와 고령 보행자의 사망 사고 비중이 높게 나타나 우려를 낳음. 고령화 사회에 맞춘 교통 안전 교육 강화와 도로 환경 개선 등 맞춤형 대책 마련이 시급함. <p>- 교통약자 보호를 위한 스마트 인프라 구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호구역 내 첨단 안전 시설 대거 확충제주자치경찰단은 노인과 어린이 등 교통약자 보호구역의 안전을 위해 58억 원을 투입하여 AI 기반 스마트 횡단보도와 통합잔여시간 표시기를 설치함. 보행자 중심의 교통 환경을 조성해 사고를 원천적으로 예방하려는 조치임. 보행 신호 시간 연장 및 시인성 개선노인 보행자의 횡단 시간을 고려해 보행 신호 시간을 연장하고 야간 시인성을 높이기 위해 발광형 표지판을 시범 도입함. 교통약자의 신체적 특성을 반영한 시설 개선으로 보행 중 교통사고 발생률을 낮추는 데 주력함.
지역·사회		<p>- 기후변화 지표 식물 개화 시기 연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복수초 조기 개화와 기후 온난화 확인국립산림과학원의 모니터링 결과 제주 한라산의 세복수초가 예년보다 한 달가량 일찍 개화한 것으로 확인됨. 이는 겨울철 평균 기온 상승 등 기후 변화가 산림 생태계의 생체 리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입증함. 자생 식물 보존을 위한 체계적 모니터링연구소는 이른 개화가 생태계 전반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제주 특산 식물인 세복수초의 종 보존을 위해 지속적인 연구를 수행함.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산림 생태계의 변화 관측 데이터 확보의 중요성이 강조됨. <p>- 제주 농업문화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업 유산의 영구 보존을 위한 다자간 협약제주농업기술원은 동오농촌재단, 상명대 등과 협력하여 제주 고유의 농업 환경과 생활 문화를 디지털 이미지로 기록하는 아카이브 구축 사업을 시작함. 사라져가는 농업 유산을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보존하는 공익적 연구 사업임. 시각 콘텐츠 제작 및 교육적 활용 방안구축된 아카이브 자료는 단순 기록을 넘어 교육, 전시, 홍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예정임. 제주의 농업 문화를 시각적 콘텐츠로 재해석하여 미래 세대에게 그 가치를 전달하고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확산하는 데 기여함. <p>- 여성·가족 정책 수립을 위한 통계 연구</p>
	연구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주 사회 성인지 통계 지표 개발 및 분석제주여성가족연구원은 인구, 가족, 교육, 경제 활동 등 다양한 영역에서 제주 여성과 남성의 삶을 분석한 '2025 통계로 보는 제주 여성·가족의 삶'을 발간함. 이는 성별 영향 평가와 성인지 예산 수립을 위한 핵심 기초 자료로 활용됨. 사회 변화상을 반영한 정책 대안 제시연구 보고서는 1인 가구 증가, 고령화, 경력 단절 등 급변하는 사회 현상을 통계적으로 규명하고 이에 따른 맞춤형 정책 수요를 도출함.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연구를 통해 제주형 양성평등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함.
지역·사회	외국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료 사각지대 외국인 범죄피해자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찰-병원 협력으로 의료 안전망 구축제주경찰청과 제주한라병원이 업무 협약을 맺고 건강보험 미가입 외국인 범죄 피해자에게 의료비 감면 혜택을 제공하기로 함. 높은 진료비 부담으로 치료를 포기하던 불법체류자 등 소외 계층에게 실질적인 의료 지원 체계를 마련함. 인권 보호를 위한 인도적 지원 체계 강화이번 협약은 체류 자격과 관계 없이 범죄 피해를 입은 외국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생명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임. 경찰은 범죄 피해자 보호 지원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 하여 내외국인 모두가 안전한 제주 사회를 만들겠다고 밝힘. 외국인 대상 물지마 폭행 범죄 검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유 없는 무차별 폭행 사건 발생 및 수사서귀포시 일대에서 일면식도 없는 외국인 여성과 남성을 잇따라 폭행한 40대 한국인 남성이 특수폭행 혐의로 경찰에 붙잡힘. 피의자는 버스 정류장 등 공공장소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이유 없이 폭력을 행사해 충격을 줌. 혐오 범죄 가능성 및 추가 피해 조사경찰은 피의자의 범행 동기가 외국인에 대한 막연한 혐오에서 비롯되었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하고 있음. 외국인 주민과 관광객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유사 범죄에 대한 순찰 강화와 엄정한 법 집행 의지를 보임. 외국인 관광객 카지노 집단 난동 처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게임 결과 불만으로 인한 보안요원 집단 폭행제주 드림타워 카지노에서 카드 게임 결과에 불만을 품은 중국인 관광객들이 보안요원을 집단으로 폭행하고 난동을 부린 사건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선고함. 이들은 카지노 운영을 방해하고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됨. 법원의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및 경고법원은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외국인 관광객의 무질서한 행위와 공공 질서 위협에 대해 엄중히 경고함. 관광지 제주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법질서를 무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국적을 불문하고 단호히 처벌함을 보여줌.

※ 본 발간물은 제주연구원(연구기획전략실)에서 온라인 상의 자료를 조사하여 재정리한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